51. 북방왕의 종말과 대군 미가엘이 일어섬
2012. 12. 16.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의 첫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북방왕의 종국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볼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이 승리하지요. 동방에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북방왕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10장에서 계시하신 역사의 배후의 영적 투쟁, 즉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간의 투쟁이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1:44,45]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1. 목사님, 금년 첫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다니엘서를 자세히 강론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쉰 한 번째 일요일이고 다음 일요일이면 끝나는데, (아니요, 금년은 쉰 세 번 일요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강론할 시간이 두 번 더 있군요. 그래도 금년이 다 갔습니다. 남은 부분을 금년에 다 마칠 수 있을는지요?

답: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쉰 세 번 강론할 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 11:39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11장은 45절로 끝이 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떤 예언인지요?

답: 나머지 부분은 북방 왕으로 표상된 세력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몰락하게 되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에 의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는 사건에 의하여 몰락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읽지요.

[단11:40~45]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41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42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43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이제 북방왕의 몰락 시기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 것이지요. **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부터는 "마지막 때"부터 그 후에 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가 여러 번 나오지요. 이 말은 "에트 케츠( )"인데 8장 10절, 11장 35, 40절, 12장 4, 9절에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260년이 끝날 무렵 즉 1798년을 전후한 때부터의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간이 1798년부터이나 "택한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마 24:22)셨기 때문에 1776년부터가 마지막 때가 됩니다. 미국의 독립으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므로 예언된 그 마지막 때가 1776년부터 되는 것입니다. 이때쯤 남방 왕이 일어나 북방 왕을 찌를 것입니다. 왜 그때부터 마지막 때인지는 단12:9절을 설명할 때 이야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청자들께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목사님, 여기서 남방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미 프톨레미 왕조의 애굽은 아니지요? 북방왕이 셀류쿠스 왕조의 시리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답: 예, 당연하지요. 다니엘 11장에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그 예언적, 역사적 진행에 따라 그 상태가 달라진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성질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사업, 구원의 사업을 방해하는 정신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0절의 **남방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은 북방 왕을 찔렀다고 했지요. 11장 14절 이후의 북방 왕은 제국로마와 그 권세를 승계한 교권로마를 예언적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애청자들께서도 이미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남방 왕은 마지막 때 즉 1776년 후에 교권로마를 찌르는 세력을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 세력을 찾으면 되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혁명기의 프랑스가 그 남방왕의 세력입니다.

4. 혁명기의 프랑스가 어떻게 남방왕의 자리를 차지하지요?

답: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의미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지요. 그런 혁명의 직접적인 동기는 재정 문제였으나 그것은 결국 중세 봉건 제도에 저항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18세기 말이 되어가면서 프랑스의 국가 조직의 핵심을 산산이 분쇄했던 격렬한 폭동은 일차적으로 중세의 봉건주의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봉건주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파괴의 요소가 교회에도 미쳤다. 이로 볼 때 종교 전반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단계는 쉽게 도래할 수 있었다"라고 기독교문사 간행 기독교 대백과 사전 15권, 1033쪽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여 혁명기의 프랑스가 북방왕을 찌르는 남방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혁명은 나폴레옹에 의해 수습되고 그는 유럽을 통일하는데 교황권이 장애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마침내 그의 부하 장군 베르띠에를 보내어 당시 교황 피우스 VI세를 사로잡아 감옥에 넣으므로 아주 정통으로 **북방 왕**을 찔렀습니다. 그 때가

바로 1798년이었지요. 마지막 때에 북방 왕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계시록 13장에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단11:40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라는 말씀의 설명이 됩니다. 여기 언급된 병거, 마병, 배, 회리바람 등은 북방 왕으로 상징된 교권로마의 세력을 예언적 상징으로 표현한 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권로마의 세력이 확장되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교권로마가 일시 위축되었지만, 프랑스 혁명세력이 쇠패하게 되자 교권로마는 오히려 그 세력을 부흥시켰습니다. 정말 물이 넘침 같이 온 세상에 그 세력을 넓혔습니다. 이 사실은 20세기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다 체험적으로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혁명세력에 의하여 북방왕을 찌르는 일을 했던 프랑스는 오히려 교권로마의 교세가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5. 그렇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예언이군요. 복음전파와 구원의 진행이라는 관점으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어서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런 설명을 얻는 일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적 발전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의 활동을 대조하여 예언을 보니 그림이 아주 선명해지는 군요. 그러면 41절의 영화로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에서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땅을 영화로운 땅으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 좋은 질문이군요. **41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영화로운 땅은 다니엘서에 몇 번 언급된 땅이지요(8:9, 11:16). 그리고 이것은 유대 땅을 실제로 가리켜 왔습니다. 유대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었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의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에 대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미 지역적 의미를 잃고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옛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성경에 민족적 역사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4:26~28과 롬 2:28, 29을 읽어보시지요.

[행4:26~28]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롬2:28,29]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민족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행하므로 이방인과 동등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그대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반영했습니다. 육신적, 혈통적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참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참 이스라엘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계12:17)들입니다. 이들은 1260년이 지나서 형성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 교회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이 이름이 현실 믿음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곧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중에 특히 제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들은 이 사상을 계시해줍니다.
[신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출31:16,17]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 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겔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성경의 계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그 나라가 더 이상 영화로운 땅도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과 그들의 영역이 영화로운 땅입니다.

7. 그렇다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그것도 어렵지 않지요.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그들의 땅을 침입하는 것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백성 된 표, 곧 영화로운 나라의 백성된 표는 제칠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경의 사상에 근거하여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은 제칠일 안식일 대신에 다른 날을 신자들의 표로 만들어서 거룩한 안식일을 침해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와 관련된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짐승의 표 이야기는 아마도 나중에 혹시 계시록을 강론할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겠네요.

8. 말씀을 들으니까 표상적으로 예언한 사실을 실제로 적용하여 풀이할 때에 합리성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견강부회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언적 시기와 함께 생각하면 그 해석이 합당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결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설명하시지요.

답: 이미 읽은 내용인데,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는 말씀이지요. 정말 쉽지 않은 예언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의 짐승과 합작하여 짐승의 표를 주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붉은 용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라고 표현된 곳에서 건국되는 국가와 바다라고 표상된 즉 옛 제국로마에서 올라온 교권로마가 경배하는 것을 두고 국법으로 경배하는 날을 강제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때 많은 나라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직 진리를 바르게 찾아 그 진리를 따르는 존귀한 자 곧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자들만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앞으로 계시록을 공부할 때 자세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그러니까 결국 북방왕으로 표상된 세력은 교권로마인데, 그 권세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오직 존귀한 자로 표상된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하는 사람 외에는 그 권세를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그 세력권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답: 앞에 말씀드린 사건을 42,43절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41절에 존귀한 자들이 그 손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42절에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설명합니다. 읽고 말씀을 나눕시다.

[단11:42,43]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예, 애굽은 남방 왕으로 표현되어 온 세력인데, 40절에서 반 교권로마적 세력이었고, 그것은 민족주의 사상, 반종교적 사상의 세력이었다는 것을 살폈지요. 그러나 42, 43절의 때에는 그러한 세력들이 다 교권로마에게 굴복 흡수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리비아와 구스도 애굽과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세력을 대표하고 있지요. 지난번 리비아 사건 때 이 예언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국제 정치적 상황에 맞추려고 하면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어가는 원리를 따라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있는 권세들이 교권로마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금 은 보물을 그가 차지하는** 것은 교권로마가 부를 축적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실제로 그렇지요.

10. 목사님 이제 마지막 구절이 남았군요. 이 말씀을 설명하면 다니엘 11장은 아주 자세히 설명한 것이 됩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과 그 소문이 북방왕을 번민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 **44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라고 했지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예수 재림의 기별입니다.
[겔43:1,2]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시48: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

하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생각하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예수님 재림의 기별이 강하게 전파되고 곧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되지요. 이 소식은 계시록 18장의 온 세상이 환하여지는 천사의 기별 곧 성령의 늦은 비 역사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강력한 예수 재림의 기별이며,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이고, 북방왕이 무너졌다는 기별입니다.
이 때 교권로마를 비롯한 그에게 연합된 세력은 분노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받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도륙하고 진멸코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멸코자 하는 노력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공격이 소용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54:17]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종말이 예언되어 있지요. 마지막 절 45절입니다. **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12장 1절과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의 끝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남으로 이르게 됩니다. 곧 예수님 재림으로 북방왕의 종말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궁전을 베풀고 거하려 하는데, 바다는 백성과 무리를 가리키지요(계 17:15).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은 남은 자손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장면이 13장에 계속되지요. 그러므로 바다는 사단의 세력이 즐겨 거하는 근거입니다. 마침내 북방왕 교권로마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그의 배경으로 업고 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 2절에는 인 맞은 자 십사만 사천 인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바다와 대조되는 세력을 뜻합니다. 이들은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교권로마가 거짓 진리로 세상을 지배할 때도 오직 어린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을 베푼다는 말씀은 북방 왕으로 표상된 교권로마와 그와 연합한 세력이 지구의 전 민족을 배경으로 그들을 지휘하여 하나님의 인 맞은 백성을 진멸하려는 시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된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의 내용을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군 미가엘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므로 그의 권세와 존재는 끝날 것이며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도 말했습니다.
[살후2: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다니엘 11장은 **우주의 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 장은 세상의 전쟁과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심판으로 악의 세력이 망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그 주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사업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극심한 노력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분명하게 계시한 내용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환경과 처지를 따라 무상하게 변장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며 하나님을 대적해 오는 사실을 세밀하게 폭로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사단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악하고 나쁘게 만든다는 상식은 기

만당하기 좋은 위험한 상식입니다. 악의 세력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의의 천사로 가장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모습으로도 위장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할 때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과 도덕성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의하여서, 특히 예언을 확실히 이해함으로 이 모든 속임수를 간파하고 진리의 정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니엘 11장에서 악의 세력의 변장을 심판하여 폭로하심으로 그것의 실상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진리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심판장이 되시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1. 목사님,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장 1절은 잠시 말했지만 다음 두 시간에 12장을 다 마쳐야 하겠네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로 마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언을 주시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의 지도를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올바르게 싸우고 파선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